

## 번역을 통한 문학교류의 불균형성에 대한 고찰: 한국과 베트남의 경우를 중심으로\*

김 주 영  
(베트남 국립호찌민대)

### 1. 서론

#### 1.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한국문학의 베트남어 번역이 활발해졌다. 이제 베트남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베트남어로 번역된 한국문학 작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 2011년 8월 3일부터 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도서전에서는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베트남어 번역본(*Hãy chăm sóc mẹ*) 2,000부가 모두 팔려 나가기도 했다(VNEXPRESS 2011). 이 사실만으로 베트남에서 한국문학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문학작품의 경우 초판 평균 2,000~3,000부

\* 본고는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Dịch Văn học, nhìn từ góc độ giao lưu văn hóa và lý thuyết giao tiếp*, 2018 발표 예정) 중 일부를 근거로, 그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혀 둔다.

를 발행하는 베트남 출판시장의 현황을 고려할 때, 이것은 주목할 만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베트남문학의 한국어 번역은 어떠한가? 베트남문학도 이제 한국인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가? 쉽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문학번역은 다양한 주변 요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각 나라가 처한 정치, 사회, 문화적 상황에 따라 문학교류상의 불균형성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학번역교류의 발전을 위해 이러한 불균형성이 고착, 심화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문학교류의 역사가 길지 않은 한국과 베트남의 경우, 교류의 역사를 따지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양국 간 문학번역 교류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근 두드러지기 시작한 문학번역교류의 불균형성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모색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 1.2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

한국과 베트남 간의 문학번역교류사는 관련 지역학 연구자들의 단골 연구 주제였다. 레당호안(Lê Đăng Hoan 2010)은 베트남에서의 한국문학 교육 및 연구 현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하면서, 1994년 이후부터 2010년까지 베트남어로 번역된 한국문학의 목록을 작성하여 소개했다. 판티투히엔(Phan Thị Thu Hiền 2011)은 한국문학의 베트남어 번역 현황을 일본 및 중국문학의 베트남어 번역 현황과 비교하여 고찰하고, 베트남에서 한국문학의 번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출판, 마케팅, 학술 연구, 교육, 유통 등의 관점에서 제시했다. 또한 김주영(2016)은 베트남에서 어린이문학이 발전해온 과정과 그 특징을 배경으로, 한국 어린이문학(그림책 포함)의 베트남어 번역 현황과 특징에 대해 고찰했다. 위의 연구들은 한국문학의 베트남어 번역만을 연구 범위로 삼고 있을 뿐 베트남문학의 한국어 번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김기태(2001, 2007)는 한국인 연구자들이 베트남문학을 주제로 진행

1) 이러한 현상에 대해 논의한 번역학 이론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 폴리시스템 이론이 있다. 마승혜(2017: 45-46)는 장(Chang)이 제안한 여섯 가지 폴리시스템 중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경제적 폴리시스템을 번역에 영향을 끼치는 외부적 요인으로 범주화하였다.

한 연구 결과물들을 소개하고, 해당 연구자들이 번역한 베트남문학 작품과 한국문학 작품을 소개했다. 하 밉 타잉(2014)은 한국어로 번역된 베트남문학 작품을 개괄적으로 소개했으나 상대적으로 ‘베트남어로 번역된 한국문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했다. 그러나 연구 대상이 1992년 한국-베트남 외교 관계 수립 이후 번역된 작품들에 국한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한국 근대문학작품을 위주로 서술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로 번역된 베트남문학과 베트남어로 번역된 한국문학의 특징을 비교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과정은 생략했다. 연구서 중에서는, 이한우, 부이 테 끄엥(2015)이 「한국-베트남 간 사회문화교류」에 대해 언급한 장에서 ‘문화’의 하위 항목으로 ‘한국문학의 번역’과 ‘베트남문학의 번역’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했다.

‘한국과 베트남 간의 문학번역교류’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베트남문학 또는 한국문학 등 어느 한쪽의 문학번역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시대만을 연구 범위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양국 모두의 문학작품 번역 결과물을 충분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번역 현황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한 연구 결과물이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학번역교류의 불균형성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현재까지 베트남어로 번역된 한국문학 작품과 한국어로 번역된 베트남문학 작품을 수집하고 분류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문학번역교류의 특징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용자(독자)의 입장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도서관<sup>2)</sup>과 서점가(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기 출판된 번역본의 실물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번역 결과물들을 수집하여 목록을 작성했다. 수집 대상은 단행본을 기준으로 하며 개론서, 이론서, 연구서, 경영인의 회고록, 어린이 대상 그림책 및 만화책과 연속간행물 등에 실린 단편소설이나 에세이는 제외했고, 단행본에 수록된 한국문학 또는 베트남문학의 전체 분량이 그 단행본의 1/3을 넘지 않는 경우도 수집 범위에서 제외했다.

문학번역은 당대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2) 한국에서는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베트남에서는 베트남국립도서관(하노이), 사회과학도서관(하노이), 호찌민시종합과학도서관, 사회과학도서관(호찌민), 국립호찌민대학교 도서관 등의 자료를 조사했다.

을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들을 분류하는 데 있어, 두 나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 두 개의 역사적 사건인 ‘1975년 4월 30일 베트남전 종전’<sup>3)</sup>과 ‘1992년 12월 22일 한국-베트남 외교 관계 정상화’, 그리고 새로운 세기의 시작인 ‘2000년’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를 기준으로 한국-베트남 문학번역교류의 현황을 ‘1975년 4월 이전’, ‘1975~1992년’, ‘1993~1999년’, 그리고 ‘2000년 이후’ 등 4단계로 구분해서 서술했다. 또한, 번역 작품의 수가 많지 않은 2000년 이전의 현황은 번역된 개별 작품의 특성을 위주로 살펴보고, 번역 작품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의 현황은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한 각종 통계 자료를 통해 비교의 관점에서 현황과 특징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 2. 시대별 한국-베트남 문학번역교류의 현황

### 2.1 1975년 베트남전 종전 이전

1975년 베트남전이 종결되기 이전,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문학번역교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작품은 『월남망국사(越南亡國史)』이다. 하지만 문학번역교류와 관련하여 이 작품을 언급할 때에는 몇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작품의 국적에 대한 물음이다. 작품의 저술과 간행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청말 중화민국 초의 사상가 량치차오(梁啟超)와 베트남의 독립운동가 판보이쩌우(Phan Bội Châu)의 역할 분배에 대해 서로 다르게 서술하고 있는 자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작품의 내용 역시 베트남인의 관점보다는 당시 중국인의 관점에서 서술된 면이 없지 않다. 저자뿐만 아니라 사용 언어, 수용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해 보아도 본 작품이 베트남 작품인지 중국 작품인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sup>4)</sup>. 이렇듯 모호한 작품의 성격을 근거로, 한국과 베트남의 문학번역교류를 고찰하는 본 논문의 연구 범

3) 1975년 4월 30일에 베트남전쟁이 종식되면서 남베트남(베트남공화국)이 패망했고 그로 인해 한국과 (남)베트남의 외교 관계가 단절되었다.

4) 이 문제와 관련하여, 송명진(2010)과 전쑤언안(Trần Xuân An 2012)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위에서 『월남망국사』는 제외한다.

그렇다면, 본 연구의 조사 범위 안에서 가장 오래된 번역 작품은 1951년에 베트남어로 번역, 출간된 강용홀의 *The grass roof*(한국어 역서명 『초당』)이다. 한국계 미국 교포인 강용홀이 1931년에 발표한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와 3.1운동을 배경으로 한 자전적인 소설이다. 베트남어 번역본은 1951년에 남부의 락비엣출판사에서 『조보프엉(*Gió bốn phương*, 사방의 바람) 번역서 시리즈』 중 하나로 출간되었다. 『해방의 길 위에서(*Trên đường giải phóng*)』로 제목이 붙여진 베트남어 번역본에서는 작품의 저자를 “고려의 대문호 강용홀(*Nhà đại-văn-hào Cao-ly YOUNGHILL-KANG*)”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작품에 대해서는 “여기 4000년의 문화를 가진 고려가 1919년 혁명을 마주하다(*Đây CAO LY bốn nghìn năm văn-hiến với cuộc Cách-mệnh năm 1919*)”라고 소개하고 있다. 번역자인 팜쥙년(*Phạm Trọng Nhân*)은 원작과 프랑스어 번역본을 수차례 대조한 후 본 작품을 베트남어로 축역(축약 번역)했다(김주영 2017: 95). ‘역자의 말’에서 번역자는 작품을 읽으면서 ‘고려인들’에게 악독한 식민지 정책을 펼친 일본의 행위에 매우 실망했음을 토로하고, 베트남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고려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작품을 번역했다고 밝히고 있다.

1969년에는 역시 한국계 미국 교포인 김은국의 *The Martyred*(한국어 역서명 『순교자』)가 베트남어로 번역되었다. 이 작품은 레각껌(*Lê Khắc Cẩm*)에 의해 베트남어로 번역되어 사이공의 쩐비이출판사에서 간행되었다.

이에 앞서 1955년에는 북한 출신 중국 교포로 연변조선족자치구에서 창작 활동을 했던 김학철의 『범람』이 『넘치는 증오(*Cảm hờn tràn ngập*)』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다. 이 번역본은 번역자인 응우옌각담(*Nguyễn Khắc Đạm*)과 쩐조안호아이(*Trần Doãn Hoài*)가 중국어 번역본을 중역한 것으로, 하노이의 루어섬출판사에서 간행되었다. 베트남어본의 서문에서 번역자들은 당시 조선의 상황이 베트남의 상황과 유사함을 강조하면서, 이 작품을 통해 독자들은 계급투쟁의 교훈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전 세계 노동인민들의 성공을 확신하게 될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김주영 2017: 96). 『넘치는 증오』라는 번역본의

제목과 서문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정치 이데올로기의 영향력 속에서 베트남어로 번역, 출간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정치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던 이 시기에는 북한과 관련된 여러 작품들이 베트남어로 번역되었다. 쩐투비엣(*Trần Thúc Việt* 2009: 510)에 따르면, 20세기 중반부터 북베트남은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1950~60년대에 시집, 시조집, 민담집을 비롯하여 한설야, 리기영, 조기천, 천세봉 등 북한 유명 소설가들의 작품이 다수 베트남어로 번역, 소개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 범위 안에서만 보더라도 1953년에 조기천, 김상오, 최영관, 홍종린, 임화의 시를 모은 시집 『전투 조선(*Triều Tiên Chiến Đấu*)』, 1960년에 한설야와 리운영의 단편소설집 『늑대(*Chó sói*)』, 1961년에 한설야의 장편소설 『황혼(*Hoàng hôn*)』, 1964년에 여러 작가의 작품을 모은 단편소설집 『자부심(*Niềm tự hào*)』 등 장편소설, 단편소설집, 희곡, 노래집, 논픽션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최소 14편 이상이 번역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모두 북베트남 하노이 소재 출판사에서 출판되었으며, 다수가 중국어(일부 러시아어) 번역본을 통한 중역본이다.

이 시기에는 한국의 민담도 베트남어로 번역되었다. 우선 1974년에 당판(*Đặng Phan*)이 축약 번역하여 사이공의 카이찌출판사에서 출간한 『고려의 옛 날이야기(*Truyện cổ Cao-Ly*)』가 있다. 원작의 작가를 ‘Tae Hung Ha’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번역본에는 22편의 한국 민담이 수록되어 있다. 번역자에 의한 것인지, 출판사에 의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번역본 서두에는 ‘고려국에 대한 개요’가 수록되어 있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북한과 남한을 아울러 ‘고려’로 칭하면서 어느 한 쪽의 이데올로기에도 치우치지 않은 서술을 이어가지만, 역사나 지리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사실과 어긋났다. 이외에도 1958년에 김동출판사에서 출간된 소련, 중국, 조선 민담집 『수놓은 비단(*Bức gấm thêu*)』에도 한국의 민담 2편이 번역되어 실려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1975년 이전에 한국어로 번역된 최초의 베트남문학 작품은 카이흥(*Khái Hưng*) 원작의 『반청춘(*Nửa chừng xuân*)』이다. 이 작품은 베트남전쟁에 참가했던 군인 출신인 윤석두의 번역으로 1969년에 출간되었으나 널리 유통되지는 못했다(김기태 2007). 베트남어 원어를 직역한 것인지 다른 언어를 통해 중역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1971년에는 당시 한국외대 베트남어과 교수였던 김기태가 1950~70년대에

5) 따지의 가격표에 '남부베트남(Nam Việt)에서의 가격'과 '남부베트남 이외의 지역(Ngoài Nam Việt)에서의 가격'이 따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번역본은 베트남의 남부에서 출판된 것으로 추정된다.

남베트남에서 활동했던 작가 4명의 단편소설 4편을 번역해 삼진사에서 간행하는 『세계단편문학전집』 중 제8권 亞阿편의 일부로 수록했다<sup>6)</sup>. 한편, 김기태(2007)에 따르면, 19세기 초 베트남의 대문호 응우옌주(Nguyễn Du)의 대표작인 운문소설 『끼에우전(Truyện Kiều)』을 베트남전 참전 사병이었던 박진이 프랑스어 번역본을 참고하여 번역한 『김번끼우, 월남의 춘향전』이 1972년에 『여성동아』의 부록으로 수록되기도 했다.

## 2.2 1992년 12월 한국-베트남 정식 외교관계 수립 이전

1975년 4월 30일, 베트남전의 종식과 더불어 한국과 베트남 간의 외교관계는 단절되었다. 이후 1992년 12월 22일에 한국과 베트남이 외교 관계를 수립할 때까지 두 나라 사이의 공식적인 교류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1975년부터 1992년 사이에 한국어로 번역된 베트남문학은 이전 시기에 번역된 작품들보다 다양했다. 1984년에 베트남 민담집인 『짜우 까우 이야기』가 김기태 번역(창비출판사)으로 출판되었고, 1986년에는 응우옌반봉(Nguyễn Văn Bông)의 『흰옷(Áo trắng)』이 『사이공의 흰옷』(친구출판사)이라는 제목으로 간행되었다. 1987년에는 또호아이(Tô Hoài)의 『귀뚜라미 표류기(Dế mèn phiêu lưu ký)』가 전해경 번역(웅진출판사)으로 출판되었고, 1988년에는 찐딘반(Trần Đình Văn)의 『그대처럼 살아(Sống như anh)』가 『불멸의 불꽃으로 살아-한 베트남 혁명전사의 삶과 죽음』(친구출판사)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으며, 1992년에는 지준모 번역, 조동일 해설로 응우옌짜이(Nguyễn Trãi) 시선집인 『베트남 최고시인 완채』(지식산업사)가 출판되었다.

이 작품들 중 『사이공의 흰옷』과 『불멸의 불꽃으로 살아-한 베트남 혁명전사의 삶과 죽음』은 각각 일본어 번역본과 프랑스어 번역본을 통해 중역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들로, 당시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운동을 이끌고 있던 대학생들에게 많이 읽혔다. 『귀뚜라미 표류기』의 경우, 1987년, 2008년, 2013년에 걸쳐 모두 세 차례 한국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원작은 1941년에 베트남에서 처음 출간된 이후 7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베트남 어린이독자들로부터 사랑

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김주영 2016: 198). 좋은 작품은 각 시대가 원하는 스타일에 맞게 새롭게 다시 번역되어야 하는 것이 옳지만, 한국어로 번역된 베트남문학의 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 작품이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해서 번역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이 경우는 앞서 출간된 번역본이 한국 독자들에게 널리 유통되지 못했다는 방증으로도 볼 수 있다. 15세기 베트남의 정치가이자 시인인 응우옌짜이의 시를 모아 번역한 『베트남 최고시인 완채』는 중역이 아닌 원작(한문 원작)에서 직접 한국어로 옮겨진 최초의 베트남 시집<sup>7)</sup>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번역본은 베트남어 전공자가 아닌 번역자도 한문으로 창작된 베트남 작품을 원작에서 직접 번역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이 시기에는 한국의 시조집 한 권과 민담집 몇 권이 베트남어로 번역되기도 했다. 1983년에는 ‘조선 민담집’인 『속임수에 빠진 용왕(Long Vương bị lừa)』이 띠딘(Tân Đình) 술(述)로 하노이 김동출판사에서 간행되었다. 1987년에는 응언장(Ngân Giang)의 술(述)로 김동출판사에서 ‘조선 민담집’ 『신비한 병(Chiếc bình thần)』이 간행되었고, 1989년에는 보광년(Võ Quang Nhơn)이 편집한 ‘한국 민담집’ 『장수 홍길동(Tràng sĩ Hồng Kinh Tôn)』이 동탑종합출판사에서 간행되었다. 특히 이 『장수 홍길동』은 본고에서 수집한 자료들 중 ‘고려’나 ‘조선’이 아닌 ‘한국 (민담집)’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최초의 민담집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1992년에는 당판 편집으로 호찌민시 재출판사에서 『조선의 옛날 이야기(Truyện cổ Triều Tiên)』가 간행되었다. 편집자 당판은 1974년에 『고려의 옛날이야기』를 축역으로 출판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번역본은 편집자 본인이 번역했던 내용을 새롭게 편집한 후 명칭을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꾸어 다시 출판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앞서, 1984년에 김동출판사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민담을 모아 출판한 러시아어 번역본(1975년 판)을 중역하여 『새뿔을 놓는 총명한 사람(Người bẫy chim thông minh)』을 출판했는데, 여기에도 ‘조선’의 민담 세 편이 실려 있다.

1990년에는 타이바편(Thái Bá Tân)이 16~17세기 조선의 시조 77수와 일본의 『만요슈(萬葉集)』에 수록된 노래 중 130수를 번역하여 『조선과 일본의 옛

6) 이 작품들은 『현대세계단편문학 350인선』(양우당, 1994) 제13권(아세아 편)에도 그대로 다시 수록되었다(하 밍 타이 2014: 34).

7) 이에 앞서 1976년에 조재현은 『베트남 근대시론』(영동문화사)을 저술하면서 베트남 근대시 37편을 번역하여 실기도 했다.

시(*Thơ cổ Triều Tiên và Nhật Bản*)』라는 제목으로 하노이 라오동출판사에서 출판했다. 2001년에 타이바편이 번역하여 출판한 『세계 시인들의 번역 시(*Thơ dịch các tác giả thế giới*)』에도 조선의 시조가 몇 수 수록되어 있으며, 동일 역자가 같은 해에 번역, 출판한 『동방의 옛 시(*Thơ cổ phương Đông*)』에도 조선의 시조 77수가 수록되어 있다. 2003년에 그가 편집한 『古詩索譯(*Cổ thi tác dịch*)』의 목록 중 4장은 『일본과 조선의 옛 시(*Thơ cổ Nhật Bản và Triều Tiên*)』로 구성되어 있다. 번역자인 타이바편은 1991년에는 러시아어판 『조선의 옛 이야기(1958)』와 몇몇 다른 번역본에서 선정한 민담을 번역하여 하노이 반화출판사에서 『조선의 옛날이야기(*Truyện cổ tích Triều Tiên*)』라는 제목으로 출판하기도 했다.

### 2.3 1993년부터 1999년까지

1992년 12월 22일에 한국과 베트남이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는 했지만 아직 문학교류 분야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지 못했다. 1993년에 즈영투 흐영(*Dương Thu Hương*)의 『제목이 없는 소설(*Tiểu thuyết vô đề*)』(『개선문(*Khải hoàn môn*)』이라는 제목도 가지고 있다)이 프랑스어 번역본 중역을 통해 『제목이 붙이지 못한 소설』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한상희 역, 동방출판사). 당시 이 작품은 프랑스에서 문학상을 수상한 것으로 한국에 소개되었으나, 실제로는 상을 수상한 작품은 아니었다. 이 작품 이후에는 바오닌(*Bảo Ninh*)의 『전쟁의 슬픔(*Nỗi buồn chiến tranh*)』이 1994년에 영어 번역본 중역으로(최종민 역, 역서명 『정글』, 청음), 1999년에 프랑스어본 중역으로(박찬규 역, 예담) 출판되었다. 이후 발표된 대부분의 문학 관련 자료에서 1999년에 출간된 번역본이 ‘최초의 한국어 번역본’인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994년 번역본은 거의 유통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1995년에는 호찌민의 시 100편과 네루다, 푸슈킨 등 외국 시인 5인의 시 48편을 모아 번역한 시집 『은박지에 새긴 사랑』(김남주 역, 푸른숲)이 출간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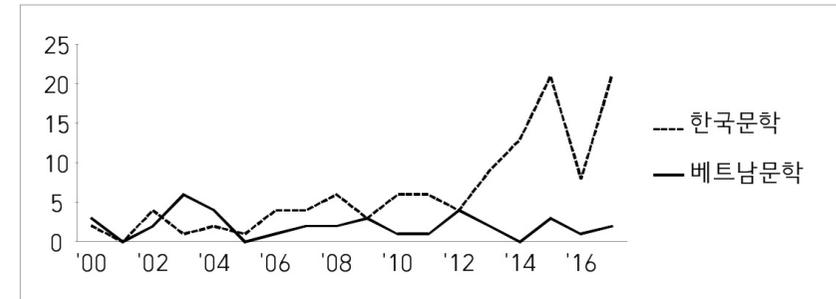
이 시기에 한국문학은 양적으로는 풍부하지 않지만 다양한 장르에 속한 작품들이 베트남어로 번역되었다. 1994년에 『춘향전(*Truyện Xuân Hương*)』이 배양수에 의해 번역되어 출판되었고, 1996년에는 강무학의 역사 소설 『황숙 이용

상(*Hoàng Thúc Lý Long Tường*)』이 전반택(*Trần Văn Thèm*)의 번역으로 국가 정치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이용상은 베트남 리씨 왕조의 왕자로, 난을 피해 고려의 화산지방으로 이주하여 살다가 해적으로부터 고려인들을 구해주는 등 큰 공을 세우고 화산군(花山君)에 봉해진 후 화산 이씨의 시조가 된 인물이다. 1998년에는 『한국의 옛날이야기(*Truyện cổ Hàn Quốc*)』가 당반롱(*Đặng Văn Lung*)의 편집으로 하노이 민족문화출판사에서 출판되었으며, 『아시아의 단편소설집』과 『외국의 야담집』 등에도 한국 작품 몇이 번역되어 실렸다.

### 2.4 2000년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문학의 베트남어 번역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한국문학의 베트남어 번역과 베트남문학의 한국어 번역은 양적인 면에서 점차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00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베트남어로 번역된 한국문학은 총 128편이며, 한국어로 번역된 베트남문학은 총 39편이다<sup>8)</sup>. 이 기간 동안 한국문학은 매해 평균 6.86편이 베트남어로 번역되었고, 베트남문학은 매해 평균 2.09편이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2000년부터 2017년 말까지 연도별로 번역된 한국문학과 베트남문학의 작품 수를 그래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도별 한국문학 번역 작품 수와 베트남문학 번역 작품 수



8) 조사 결과에서, 한 작품이 동일 번역자의 번역으로 재출간된 경우는 같은 번역본으로 간주했고, 같은 작품이라도 다른 번역자에 의해 재번역, 출간된 경우는 각각 독립된 다른 번역본으로 계산했다. 또한 역자가 자의로 요약 또는 편집한 번역물과 한국과 베트남 양측의 직접 교류 활동을 통해 탄생한 창작물의 번역본 등은 본 통계수치에서 제외했다.

위의 그래프를 보면, 2005년까지 한국문학의 베트남어 번역 편수와 베트남문학의 한국어 번역 편수는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2006년부터 이 두 수치 사이의 간격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한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베트남문학은 매해 평균 2.5편이 번역되었으며, 한국문학은 1.67편이 번역되었다. 수치상 이 기간에는 오히려 베트남문학이 한국문학보다 더 많이 번역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200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베트남문학은 매해 평균 1.89편, 한국문학은 매해 평균 9.31편이 번역되었다. 2000년부터 2018년 8월까지를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었을 때, 한국어로 번역된 베트남문학 작품의 수는 전체 기간 동안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베트남어로 번역된 한국문학 작품은 수치상 전기에 비해 중, 후기에 5배 이상 증가했다.

이 시기에 번역된 작품들을 시대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시대별로 구분한 한국문학 번역 작품 수와 베트남문학 번역 작품 수

|       | 고전문학 | 근대문학 | 현대문학 | 합계  |
|-------|------|------|------|-----|
| 한국문학  | 21   | 13   | 94   | 128 |
| 베트남문학 | 8    | 5    | 26   | 3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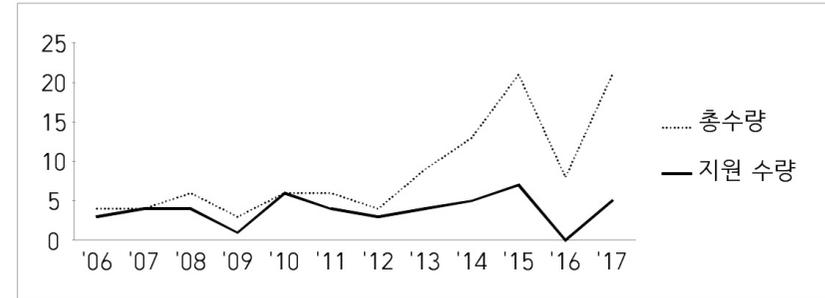
위의 표를 보면, 한국어로 번역된 베트남 근대문학 작품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수치는 서로 다른 번역자에 의한 동일 작품의 번역본을 따로 계산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베트남 근대문학 중 『귀뚜라미 표류기』와 『옥중일기(Nhật ký trong tù)』를 포함한 호찌민의 시집만이 한국어로 번역되었다<sup>9)</sup>. 한편, 한국 고전문학 21편 중 민담(설화)류는 모두 8편이 포함되어 있다.

2006년부터 한국어로 번역되는 베트남문학 작품의 수와 베트남어로 번역되는 한국문학 작품의 수 사이의 차이가 점차 벌어지기 시작했다. 2000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번역된 한국문학 중 약 92.2%가 2006년 이후에 번역된 것들이다. 2006년 이후에 번역된 작품들을 살펴보면, 고전문학이 17편, 근대문학이 11편 그리고 현대문학이 90편으로 모두 118편이다. 이 중 고전문학 13편, 근대문학 10편, 현대문학 26편 등 모두 49편이 한국문학번역원, 대산문화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번역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다.

다음은 2006년 이후 베트남어로 번역된 한국문학 중 한국의 각종 기관으로부터 번역 지원을 받아 출판된 번역본의 수량을 전체 수량과 비교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다<sup>10)</sup>.

〈그림 2〉 연도별 베트남어로 번역된 한국문학 총수 및 한국 기관의 번역 지원을 받아 출판된 한국문학 작품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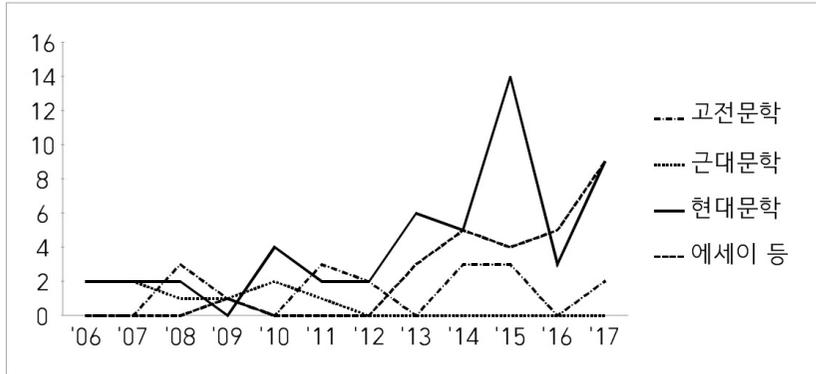
위의 그래프를 보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베트남어로 번역된 한국문학의 총수와 그중 한국 기관의 지원을 받아 출판된 작품 수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모양을 그리고 있다. 이것은 곧 한국 측의 공급이 전체 한국문학의 번역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2012년 이후에도 총수량과 지원 수량 사이의 증가, 감소 모양은 유사하게 유지되지만 ‘총수량 - 지원 수량’의 수치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한국 측의 공급에 의한 번역 비율이 줄고, 베트남 측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번역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이 중 『옥중일기』는 호찌민이 1942년에서 1943년 사이에 지은 한시들을 모은 작품집으로, 형식적으로는 고전문학에 속하지만 창작 시기는 근대와 현대 사이에 걸쳐 있고 현대 베트남어로 번역되기 시작한 시기는 1960년 이후이다. 또한 『귀뚜라미 표류기』는 1941년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처음 출판된 후 1955년에 내용을 보충하여 다시 출판되었다. 따라서 이 작품 역시 시기적으로 근대와 현대 사이에 걸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이 두 작품을 근대문학으로 분류했다.

10) 각 기관의 홈페이지와 번역서의 판권면에 기재된 번역 지원 여부를 대조, 참고하여 필자가 직접 작성했다. 번역 지원은 선정만 된 경우는 제외하고, 선정된 후 출판 과정을 마친 번역본만 통계에 포함했다.

한편, 2006년 이후 베트남어로 번역된 한국문학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종류별 베트남어로 번역된 한국문학의 수량



\* 종류별 특징을 고찰하기 용이하도록 “현대문학” 중 ‘에세이, 드라마나 영화의 원작이거나 또는 드라마나 영화를 소설화한 작품들’을 별도의 항목인 “에세이 등”으로 분리했다.

위의 그래프를 보면, 한국과 베트남이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자, 2002년에 한국 기관의 번역 지원이 시작(대산문화재단 지원 『5인의 한국 현대 시인(Năm nhà thơ hiện đại Hàn Quốc)』)된 지 10년이 되는 해인 2012년을 기점으로 한국 근대문학과 고전문학의 번역 비중이 줄고, 현대문학과 에세이 등의 번역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sup>11)</sup>. 특히 위의 그래프 중 ‘현대문학’의 증가 추이가 앞의 <그림 2>에서 ‘한국문학 번역 총수량’ 그래프의 증가 추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2012년 이후 ‘한국 현대문학의 번역 증가’가 ‘한국문학 번역 총수’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베트남문학의 한국어 번역은 이전 시기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점이

보이지 않는다. 현대문학 작품의 번역이 가장 많았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근대문학 작품의 한국어 번역은 매우 부족했다. 고전문학의 경우, 비록 수량은 많지 않지만(위의 <표 1> 참조) 신화, 고전소설, 운문소설, 민요집, 민담집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번역되었다. 번역 인력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베트남어에서 직접 한국어로 번역하는 번역자 중 대부분이 베트남 관련 연구자들이다. 2000년 이후 베트남문학의 한국어 번역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점은 해외 거주 베트남인(교포)의 작품이 꾸준히 번역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베트남 출신의 승려이자 시인, 평화운동가로 유명한 틱녓하인(Thích Nhất Hạnh, 한국어식 표기 ‘틱낫한’)의 작품이 다수 번역, 출판되었다. 소설, 시 등 문학 장르만 계산하면 2000년 이후 모두 9작품이 번역되었고, 기타 장르까지 합하면 모두 약 76종이 번역되어 있다. 이 작품들은 대부분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들이다. 이외에도 영어 원작인 레남(Lê Nam, 한국어에서는 ‘남레’로 표기)의 『보트(The Boat)』(2009, 조동섭 역)와 응우옌타인비엣(Nguyễn Thanh Việt, 한국어에서는 ‘비엠타인 응우옌’으로 표기)의 『동조자(The Sympathizer)』(2018, 김희용 역)가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 3. 한국-베트남 문학번역교류의 특징과 불균형성의 원인

위의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양국 간 문학번역교류에 있어서 양적 불균형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2000년을 중심으로 그 전과 후의 특징을 살펴보고, 현재의 불균형성이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특히 2000년 이후의 특징은, 번역 환경, 번역 인력, 서로의 문학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3.1 2000년 이전

##### 3.1.1 1975년 베트남전 종전 이전

이 시기에 한국어로 번역된 베트남문학은 2편이 수집되는 데 그친 반면, 베트남어로 번역된 한국문학은 상대적으로 다양했다. 이 중 민담류를 제외하면

11) 에세이 작품의 경우, 2002년에 번역된 한 작품을 제외하면 나머지 12작품이 모두 2014년 이후에 번역, 출판된 것들이다. 또한 영화나 드라마와 관련된 작품은 2013년에 『포도밭 그 사나이(Chàng trai vườn nho)』가 처음으로 번역, 출판된 후 2018년 8월 현재까지 모두 18작품이 번역되었다.

대부분 해외 교포의 작품이거나 북한과 관련된 작품들로, 베트남과 정치적, 역사적인 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의 작품들이었다. 이 시기에는 양국이 처한 식민지, 전쟁 등의 혼란한 시대적 배경과 이데올로기의 대립 등이 문학번역교류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 시기에 진행된 문학번역교류의 결과물에 대한 자료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그 특징을 단정 지어 말하기는 이르다.

### 3.1.2 1992년 12월 한국-베트남 정식 외교관계 수립 이전

1975년부터 1992년까지는 한국과 베트남 모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외부 세계와 막 교류를 시작하려고 하는 시기였다. 그러나 아직은 양국의 외교 단절로 인해 민간교류가 불가능했으므로 베트남문학의 한국어 번역은 전 시기와 비슷하게 베트남 관련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당시 한국 사회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 유사한 상황을 겪었던 남베트남을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이 중역으로 번역되어 대학생들 사이에서 읽히는 것이 전부였다. 반면, 한국문학의 베트남어 번역의 경우, 민담류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활발히 번역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다수가 중국어나 러시아어를 통한 중역이었으며, 대부분의 번역본이 ‘조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베트남 독자들에게 이 번역본들은 ‘북한’의 것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시기에는 두 나라의 단절된 외교 관계로 인해 문학번역교류도 단절될 수밖에 없었다. 이따금 이루어지는 문학번역 역시 서로 다른 관심사에서 발원한 상이한 성격의 교류였다.

### 3.1.3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이 시기에 한국에서는 해외에서 소개된 베트남 현대문학 작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베트남에서는 여전히 한국의 민담류를 중심으로 번역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사항은 이 시기에 번역된 한국의 민담류 대부분이 ‘고려’나 ‘조선’ 대신 ‘한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조사 범위 내에서는 1998년에 타인니엔출판사에서 출판한 『한국의 옛날이야기 (Truyện cổ tích Hàn Quốc)』(원작: 『옛날이야기』, 이신희 편)가 중역이 아닌 한국어에서 직접 번역한 것으로,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에서 출판된 한국 민담

집 중 최초로 ‘한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민담집이다. 이에 앞서 남부에서는 1989년에 이미 (‘한국’ 명칭을 사용한) ‘한국 민담집’ 『장수 홍길동』(동탑종합출판사)이 유통되고 있었다. 이것은 한국과 베트남이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맺기 이전에도 두 나라 사이에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1998년에 하노이에서 ‘한국’ 명칭을 사용한 번역본이 처음 등장한 것은 한국에 대한 베트남의 인식이 전환되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sup>12)</sup>. 문학번역과는 별도로, 1995년 10월에는 문학 전문 학술지인 『문학잡지(Tạp chí Văn học)』에서 ‘한국문학과 한-베 문학 관계’에 대한 특별호를 발행하기도 했다. 이것은 한국과 베트남 문학 연구자들의 학술교류의 결과물로서, 학술교류는 번역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향후 문학번역의 수요가 증가할 것임을 암시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이 시기는 두 나라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체결된 직후이므로 아직 문학번역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못했으나 미래의 도약을 위해 준비하는 시기였다. 한국문학의 베트남어 번역에 있어서 베트남은 상당히 열린 자세를 견지하면서 한국 측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반면, 베트남문학의 한국어 번역에 있어서 한국은 제3국을 통해 베트남문학을 간접적으로 접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200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양국 간 문학번역교류의 불균형적인 징후는 이 시기부터 발아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 3.2. 2000년 이후

### 3.2.1 번역 환경

번역 환경은 번역자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것으로서, 번역학에서 다루어야 하는 기본적인 문제들 중 하나이다. 한국과 베트남이 당면한 공통의 문제점은 문학번역에 대한 경제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문학의 베트남어 번역은 한국문학번역원, 대산문화재단 등 제도번역의 지원(강지혜 2012: 15)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황이 유리한 편이다<sup>13)</sup>. 특히

12) 이와 관련해서 이한우, 부이 테 끄엥(2015: 15)은 초대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였던 박노수 대사의 요청에 의해 베트남에서 ‘남조선’ 대신 ‘한국’ 명칭이 쓰이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을 받아 출판된 문학작품은 모두 44편(2006년 이후에만 42편)이다. 한국문학번역원의 ‘언어권별 장르별 번역지원 세부현황(2017년 4분기 기준)’(한국문학번역원 2018)을 살펴보면 지원 건수 면에서 전체 36개 언어 중 베트남어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다음으로 8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9위인 이태리어의 33건보다 약 2배가 많은 64건(문학 및 기타 장르 총합)의 번역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하위 21개 언어권에 대한 번역 지원이 각각 10건 이하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베트남어권은 한국 측에서 자국의 문학을 전파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주요 언어권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한국문학의 베트남어 번역 환경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금을 제외하고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의 지원금은 번역을 희망하는 모든 번역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부 번역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직접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비교적 많은 베트남독자들에게 읽힌 『엄마를 부탁해』 베트남어본의 번역자 레히엵람(Lê Hiệp Lâm)이 받은 번역비는 2011년 당시 매절로 9백만동(2011년 5월 기준 미화 약 436달러)이었다. 베트남 정부에서 발표한 2011년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월 384만동(Linh Khánh 2012)이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균 월급일뿐이다. 업종별, 직급별 소득 격차가 매우 심하고 저임금의 노동력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의 사정을 감안하면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장편소설 번역 작업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9백만동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번역 지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제적인 면에서 한국의 베트남문학 번역 환경과 베트남의 한국문학 번역 환경은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왜 한국문학의 베트남어 번역만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 불균형한 번역 증가의 원인으로 제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베트남 출판시장에서 일반 번역자들이 외국문학 번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한국

13) 대산문화재단에서는 ‘외국문학의 한국어 번역’도 지원하고 있는데, 1999년에 처음으로 지원을 시작한 후로 베트남문학은 2017년에 단 1작품이 지원작으로 선정되는 데 그치고 있다.

출판시장에 비해 훨씬 열려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출판시장이 불황의 늪을 걷고 있고 이와 더불어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다. 따라서 신인 번역자들에게 번역 작업의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기존의 번역자들이 출판시장의 이해관계에 구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번역 작업을 이어나가는 것 역시 어렵다. 반면 베트남은 높은 경제 성장률 속에서 청년층의 사회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베트남은 한국에 비해 신인 번역자가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경제적 풍토를 갖추고 있다. 번역의 품질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개인이 원할 경우 어렵지 않게 번역에 참여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앞에서 언급한 『엄마를 부탁해』 베트남어본의 번역자인 레히엵람 역시 이 작품을 번역하기 전에는 번역 경험이 전무했다. 그러나 현재 베트남 내에서 대형 출판사 중 하나로 꼽히는 나남출판사에서는 큰 고민 없이 출판사 직원으로부터 소개 받은 평범한 직장인(당시 주한 베트남대사관 근무)인 그를 외국 유명 문학작품의 번역자로 선택했고, 그가 한국어에서 베트남어로 번역해 놓은 번역본을 편집인이 영어본과 대조하여 교정하는 과정을 거쳐 출판했다. 이 과정에서 편집인의 역할이 커지면서 편집인이 공동 번역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sup>14)</sup>.

### 3.2.2 번역 인력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열악한 번역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학을 베트남어로 번역하는 번역자수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sup>15)</sup>. 이것은 한국에서 어학연수 또는 석·박사 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베트남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이한우(2013: 119)의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관련 석·박사 논문들 중 베트남인 연구자에 의해 작성된 것은 2005년에 50%에서 2011년에는 74.7%(75편 중 56편)으로 대폭 상승했다. 그리고 2012년에는 108편 중 66편으로 61.1%를 나타냈다. 이한우는 2000년대 후반에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베트남 학생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이 졸업을 하게 되는 시기인 2011

14) 위의 인터뷰 내용에서 요약, 정리.

15) 현재 번역, 출판 경험이 있는 번역자는 40명이 넘으며, 그중 2작품 이상 번역, 출판한 번역자만 약 20명이다.

-2012년도에 베트남인들의 석·박사 학위 취득 비율이 증가하게 되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2010년 이후에 베트남인 한국문학 번역자가 전에 비해 많이 등장하게 된 것도 이러한 현상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유학하는 베트남 학생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문학을 베트남어로 번역하는 인력의 지속적인 증가도 기대해볼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문학의 한국어 번역의 경우는 현재의 번역 인력도 매우 적을 뿐더러 30대 이하의 젊은 번역자가 전무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도 개선될지가 의문이다. 베트남 소재 각 대학의 외국인을 위한 베트남 관련 학과와 한국 소재 대학의 베트남 관련 학과에 입학하는 한국인의 수는 매해 수백 명에 달한다. 특히 호찌민 소재 대학에만 매년 약 100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각 대학의 외국인을 위한 베트남 관련 학과에 입학하고 있다. 이 경우도 일종의 유학생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국에서 유학하는 베트남인 유학생과 다른 점은 대부분이 학부생이며 대학원생은 극히 드물다는 점이다. 작업의 난이도 등의 문제로 인해 일반적으로 학부생보다는 대학원생이 문학번역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인 유학생들이 베트남문학 번역에 참여하는 일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베트남의 입장에서 번역 인력의 부족 현상은 한국어로의 번역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이 점을 파악하고 베트남에서는 자국 문학의 외국어 번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 결과, 베트남문학문예연합회에서 베트남문학을 외국에 알리는 데 공이 있는 외국인 번역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베트남작가협회에서는 2010-2015년도 베트남문학 번역 작업과 관련하여 몇몇 외국인 번역자들과 협력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행사들을 개최했다(Hòa Bình 2010). 또한 베트남작가협회에서는 베트남문학과 문화를 세계에 소개하고 외국의 문화를 효과적으로 베트남에 들여오기 위해 2014년 5월 26일에 ‘문학번역센터’를 설립하기도 했다(Khải Trí 2014). 이외에도 문학번역과 관련하여 여러 행사들이 개최되었다. 또한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겨냥하여 ‘시범적으로’ 베트남 작품을 영어로 직접 번역하여 베트남 시장에서 출판한 사례도 있다<sup>16)</sup>.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젊은 번역자들을 양성하는 것이다. 현재 베트남문학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번역자들 중 대부분은 고령의 학자이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문학을 다른 나라에 소개할 때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곳이 학계라는 것을 생각할 때 베트남문학의 한국어 번역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자 수요가 있을 때, 한국에서는 여전히 중역을 통해 베트남문학을 번역하기도 한다. 영어로 쓰인 틱넛하인이나 해외 교포의 작품을 제외하고, 2011년 이후 번역된 10작품 중 2작품이 영어를 통한 중역으로 번역되었다. 또한 최근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인해 인기를 끌고 있는 베트남 옛날이야기 소재 그림책들 역시 다수가 영어를 통해 중역되었거나, (베트남어 원작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한국 거주 베트남인들에 의해 한국어로 다시 쓰인 것들이다. 한편, 베트남문학 작품을 번역하는 대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인을 주인공으로 하여 현 상황에 맞게 새롭게 창작된 작품들도 다수 등장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베트남에서 한국어로 양방향의 인적 교류가 모두 활발해지기는 했지만, 인적 교류의 성격에 따라 문학번역교류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한국과 베트남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 3.2.3 서로의 문학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도

출판을 목적으로 하는 문학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자들의 관심도’라고 할 수 있다. 일반 대중독자들의 차원에서,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서로에 대한 관심의 발원지는 상이하다. 베트남인들이 한국에 대해 공식적으로 접할 수 있었던 시기는 1992년 12월 양국의 외교관계가 정상화된 이후의 일이다. 앞의 조사 결과로도 알 수 있듯이, 외교관계가 정상화된 직후부터 수년 동안은 양국의 문학교류에 있어 급격한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다. 이후 ‘한류’로 불리는 한국 대중문화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베트남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중문화로부터 촉발된 관심이 문학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

(한국어 역서명 『눈을 감고 창을 열면』)를 영어로 번역하여 *Open the window, eyes closed*라는 제목으로 베트남 내에서 출간했다. 이 번역본은 베트남 거주 외국인들을 독자층으로 삼고 있으며, 온라인 유통사이트나 국제 도서전 등을 통해 해외에 소개되었다(Đài Sơn 2011).

16) 2011년 3월에 베트남 제출판사에서는 어린이 소설인 *Vừa nhắm mắt vừa mở cửa sổ*

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베트남에서 한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부터 2005년경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던 한국문학의 베트남어 번역 수량이 2006년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2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베트남어로 번역된 한국문학은 대부분 한국 문학번역원 등 한국 기관의 지원을 받아 출판된 것들이므로 이 시기에 한국문학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관심이 증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2012년 이후 전체 번역본의 수량 대비 한국 기관의 지원을 받은 번역본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만하다. 한국 기관의 지원을 받은 번역본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번역을 통한 문학교류에 있어 상대적으로 공급자의 영향력이 강력하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한편, 한국 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은 번역본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수용자인 베트남 측에서 자발적으로 한국문학에 관심을 갖고 번역, 출판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2012년 이후 한국 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출판된 번역본 중 거의 대부분이 판매량이 많은 현대문학과 에세이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와 관련된 문학작품들이라는 점 역시 한국문학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관심도가 증가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sup>17)</sup>.

반면, 2000년 이후 베트남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은 역사 문제와 투자 및 관광을 비롯한 경제적 측면에서 시작되었다. 1999년 11월 19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한국에서 가장 많은 방문자수를 가지고 있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 검색 가능한 뉴스를 분석한 김성란(2010: 14)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베트남 관련 기사 중 41%는 경제 관련, 22%는 역사 관련, 12%는 다문화 관련, 그리고 8%는 문화 관련 기사였다. 연구 시점으로부터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현재에도 베트남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은 관광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큰 변동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관심사는 베트남문학의 한국어 번역에도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다. 주로 실용서와 관련이 있는 투자 및 관광을 비롯한 경제 관련 분야 서적과 문화 관련 서적 그리고 다문화 관련 민담류와 어린이문학(그림책 등)이 다수 출간되고 있는 가운데, 문학 분야는 일부 독

자층과 특정 작가의 작품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역사 문제에 대한 관심은 대부분 ‘베트남전쟁’이나 ‘호찌민 주석’과 관련된 것으로, 베트남전쟁을 소재로 한 바오닌의 『전쟁의 슬픔』과 호찌민의 시가 각각 중역과 직역을 합해 모두 세 차례씩 번역되었다. 이외에도 어린이문학 장르에 속하는 또호아이의 『귀뚜라미 표류기』 역시 세 차례 번역, 출판되었다. 이와 같이 동일 작품에 대한 중복번역 사례 외에도, 특정 작가에 대한 편중 현상도 나타났다. 앞서 언급했듯이 베트남 출신 승려인 틱넛하인의 작품이 다수 번역된 것이 그 예이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시행되는 몇몇 (국제)문학상의 수상자로 베트남인 작가를 선정하면서 베트남문학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 역시 아직은 베트남문학에 대한 한국인들의 보편적인 관심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4. 결론: 번역을 통한 문학교류의 상호 발전을 위한 과제

지금까지 조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이루어진 문학번역교류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 간 문학번역교류의 불균형성이 유발된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2000년 이전의 한국-베트남 문학번역교류는 양국의 정치적, 역사적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1992년에 한국과 베트남이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이전에도 두 나라 사이에 문학번역교류는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주목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정식 외교관계가 수립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양국의 문학번역교류에 큰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문화적인 면에서 2000년 이후 점차 두드러지기 시작하는 한국 공급-베트남 수용의 일방적인 관계의 징후가 이 시기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반면, 한국은 이 시기에도 여전히 외국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베트남문학을 접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문학번역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0년 이후에는 한국의 정책적 개입에 따라 집중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한국문학의 베트남어 번역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이제는 베트남 측이 자발적으로 한국문학 번역에 참여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베트남문학의 한국어 번역은 베트

17) 현재까지 번역된 14편의 에세이 작품 중 13편과 드라마-영화 관련 작품 21편 전부가 2012년 이후에 번역된 것들이다.

남문학에 대한 여전히 낮은 독자들의 관심도와 출판시장의 높은 장벽 그리고 번역 인력 부족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대중문화로 인해 촉발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한국 측의 정책적인 자국 문학 공급 시기를 지나 베트남 내의 자발적인 한국문학 번역 단계로 도약하기까지 약 10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자국의 문학을 전파하기 위한 베트남 측의 정책적인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측 문학번역교류가 상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 간 베트남문학의 한국어 번역을 어떻게 이끌어 나아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앞서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 지원 통계에서도 보았듯이 베트남은 한국 측이 자국의 문학을 전파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국가들 중 하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것만을 전파하기 보다는 상대의 문학을 번역하고 연구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문학의 베트남어 번역에 있어서도 지금의 순조로운 성장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발전과 쇠퇴의 기로에 서 있는 한국문학의 베트남어 번역과 베트남문학의 한국어 번역을 통해 각각의 상이한 맥락에 맞게 무엇을 어떻게 주고받아야 할지 면밀하고 깊이 있게 성찰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진행되었던 문학번역교류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되었으나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번역 작품 목록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특히 1975년 이전의 교류 현황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여러 정황상 수교 단절 시점인 1975년 이전에 한국문학 작품들이 (최소한 남부) 베트남에서 번역되어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나 이 시기의 자료들은 베트남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보존 상황이 좋지 않아 다른 경로를 통한 조사와 수집이 요구된다. 둘째, 각 시대별로 문학번역교류의 변화와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셋째, 각 번역본의 품질과 영향력(수용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없이 시간 순서에 따라 존재를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한계점들은 차후에 이루어질 연구들을 위한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강지혜 (2012) 「번역에 대한 제도적 관점의 중요성 고찰: ‘제도번역’ 개념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3(5): 7-32.
- 김기태 (2001) 「한국인의 베트남 문학연구 고찰」, 『베트남연구』 2: 7-26.
- 김성란 (2010) 「다른 문화를 ‘안다’는 것: 미디어에 나타난 베트남 분석을 통해」, 『미디어, 젠더 & 문화』 15: 5-36.
- 김주영 (2016) 「베트남 어린이문학의 발전 과정과 한국 어린이문학의 베트남어 번역에 대한 고찰」, 『베트남연구』 14: 189-216.
- 마승혜 (2017) 「폴리시스템(Polysystem) 이론에 관한 고찰 및 이론 진화를 위한 새로운 논의」, 『번역학연구』 18(1): 41-64.
- 송명진 (2010) 「월남망국사의 번역, 문체, 출판」, 『현대문학의 연구』 42: 171-203.
- 이한우 (2013) 「한국의 베트남 연구」, 『아시아 리뷰』 3(1): 109-158.
- 이한우, 부이 테 끄영 (2015) 『한국-베트남 관계 20년, 1992~2012 협력관계의 전개와 발전 방향』, 서울: 폴리테이아.
- 하 밍 타이 (2014) 『한국문학의 베트남어 번역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한국학 전공 박사학위 논문.
- Kim Joo Young (2017) ‘Những đặc điểm và triển vọng của giao lưu phiên dịch tác phẩm văn học giữa Việt Nam và Hàn Quốc’, *Nghiên cứu Văn học* 539: 94-105.
- Lê Đăng Hoan (2010) ‘Thực tế dịch thuật, giáo dục và nghiên cứu văn học Hàn Quốc tại Việt Nam những năm gần đây’, *Kỷ yếu Hội thảo tiếng Hàn Quốc, Trường Đại học ngoại ngữ - ĐHQGHN*: 186-192.
- Phan Thị Thu Hiền (2011) ‘Dịch văn học và văn học dịch Hàn Quốc, nhìn từ Việt Nam trong phối cảnh so sánh’, *Kỷ yếu Hội thảo quốc tế Dịch văn học và văn học dịch Hàn Quốc ở châu Á - Trường Đại học KHXH & NV TP.HCM và Viện Dịch thuật Văn học Hàn Quốc*: 35-47.
- Trần Thúc Việt (2009) ‘Nghiên cứu văn học Hàn Quốc tại Việt Nam’, *Kỷ yếu Hội thảo quốc tế Tiếng Hàn Quốc, Trường Đại học Ngoại ngữ Hà Nội*: 509-519.

Trần Xuân An (2012) 'Ai là tác giả "Việt Nam Vong Quốc Sĩ"?' (Bổ sung tư liệu và lí giải về một vấn nạn)', *Tạp chí Xưa và Nay* 407: 34-35.

<인터넷 자료>

김기태 (2007) 「한국인들의 베트남 문학연구」, 『한국과 베트남 문학교류의 과거와 현재 학술대회 발표집』, 굿모닝 베트남, 2018년 8월 20일 검색.

한국문학번역원 (2018) 「번역지원 사업 통계 - 언어권별 지원 현황」, 2018년 8월 20일 검색.

Đài Sơn (2011) "'Xuất khẩu" văn học Việt ra thế giới', *VNU Media*. Available at <https://www.vnu.edu.vn/btdhqghn/inc/print.asp?N12851>

Hòa Bình (2010) 'Văn học Việt Nam cảm ơn các dịch giả nước ngoài', *Việt Báo*, 8 January. Available at <http://vietbao.vn/Van-hoa/Van-hoc-Viet-Nam-cam-on-cac-dich-gia-nuoc-ngoai/20888481/181/>

Khải Trí (2014) 'Ra mắt Trung tâm dịch văn học', *Vietnamnet*, 26 May. Available at <http://vietnamnet.vn/vn/giai-tri/ra-mat-trung-tam-dich-van-hoc-177441.html>

Linh Khánh (2012) 'Năm 2011: Thu nhập bình quân người lao động tăng 15%', *VTV NEWS*, 21 January. Available at <https://vtv.vn/trong-nuoc/nam-2011-thu-nhap-binh-quan-nguoi-lao-dong-tang-15-58103.htm>

VNEXPRESS (2011) '2.000 cuốn 'Hãy chăm sóc mẹ' bán hết tại hội chợ', *VNEXPRESS*, 9 August. Available at <http://giaitri.vnexpress.net/tin-tuc/sach/lang-van/2-000-cuon-hay-cham-soc-me-ban-het-tai-hoi-cho-1971062.html>

<인터뷰>

『엄마를 부탁해』 베트남어본(*Hãy chăm sóc mẹ*) 번역자 레히엠클(Lê Hiệp Lâm) 인터뷰: 2015년 3월 9일 ~ 2015년 5월 7일까지 이메일(서면)을 통해 6회 실시.

[Abstract]

**A Study on the Imbalance of Literary Exchange through Translation:  
Focusing on the case of Korea and Vietnam**

Kim, Joo Young

(Vietnam National University—Ho Chi Minh C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compare the current situation and aspects of literary exchanges through translation between Korea and Vietnam and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literary transl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future. Since 2006, literary exchanges through translation between Korea and Vietnam has started in earnest, and a quantitative imbalance has begun to occur since then. Before 2000, the literary transl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influenced by the political and historical situation of both countries. On the other hand, since 2000, it is driven by various factors such as social atmosphere, national policy, and the situation of publishing market in each country. In order to develop a literary translation for both sides, it is necessary to have a deeper reflection on what and how to exchange based on each specific context.

▶ Key Words: Korean literature, Vietnamese literature, literary translation, literary exchange

▶ 주제어: 한국문학, 베트남문학, 문학번역, 문학교류

김주영

베트남 국립호찌민대학교 문학과 박사과정생

izoony@naver.com

관심분야: 문학번역, 번역교육

논문투고일: 2018년 8월 13일

심사완료일: 2018년 9월 10일

게재확정일: 2018년 9월 27일